



‘선봉’ 아 잘 자라다오!

고통스럽고 힘든 탄생과정 행복 · 추억과정으로 기억
 여유없이 투쟁어려우나 귀여움 · 사랑 듬뿍받아 기뻐



조 부 연
 성보화학(주) 연구소

養母와 生母

95년초 ‘선봉’ 개발의 주역인 황기준 박사가 (주)미원 연구소장으로 전직을 하는 일대사건이 터졌다. 이때만해도 별다른 애로를 느끼지 못했고 전직하시는데도 별다른 감회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며 실험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개발 당사자가 없는 화연과는 공식 창구가 상실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물론 그 당시 안전성 센터의 N 박사님과 K 박사님이 독성 등의 안전성 실험을 수행 중이어서 당장의 일을 상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수행하는데는 상당한 어려

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당시 화학연구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싸게 Project를 넘겨 주었다는 일부 평가도 있어서 어디다 대고 크게 물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이 Project를 성보가 아니면 과연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겠는가 싶다.

그러한 와중에서 안전성 센터 K 박사님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수행에 큰 문제가 야기 되었을 것이다. 이분은 한마디로 매사가 확실한 분이다. 너무 고마워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다. 그러나 “연구를 위하여 뛰는 분들에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주겠으니 지엽적인 부

분에 신경쓰지 말라" "차라리 그 시간에 더욱 연구에 정진하라" 하시던 그분의 말씀에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낀다.

그때 그분과 나는 어쩌면 '養母와 生母'의 입장이었다. 황박 사님을 生母라 한다면 '선봉'을 키워 나가는 필자를 포함한 K박사와 모든 분들이 養母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인간사도 낳은정보다는 기른정이 더 깊고 애뜻하다고 하지 않는가? 가끔 TV나 신문지상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정성껏 기르고 바뀐 사실을 확인한 후에 갈라서는 양모와 생모의 모습에서 양모의 슬픔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감상이 아닐것이다. 정이들면 내가 낳았든 안 낳았든 문제가 아닌것 같다. 단지 어느날 갑자기 생모를 잃은 양모의 심정. 특히 예기치도 않던 사건(?)이라 더욱 당황하고 황당하였던 것이다.

실험이 거의 종료되고 농림수산부와 환경청, 노동부에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각종 매스컴에서 '선봉'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나는 이 자리가 상당한 서운함을 느끼는 자리가 된 것에 못내 쓸쓸함을 느꼈다. 내 자신의 욕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솔직히 무시된듯한 상황과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그 자리에는 뜻밖에도 '선봉'을 낳



신규 농약을 농림수산부와 환경청, 노동부 등에 출생신고 하기 위한 구비조건을 보면 크게 이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안전성(일반독성, 환경독성), 환경화학 및 거동, 기타(ADI, MRL, PHI, MSD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 기르는데 어머니 역할을 하였던 양모와 생모가 속출하였기 때문이었다. '선봉'을 잘키우기 위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동분서주하며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닐때는 조용하고 침묵하던 지금의 양모와 생모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관심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게다가 키우는데 정말 힘들고 험난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는 그야말로 유구무언이었다. 어쨌든 '선봉'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음은 양어미의 섭섭함이든 어떻든간에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일게다. 삶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이 다소 행복하다면 과정의 모든 어려움이나 시름, 역경은 잊혀지고 모든 것이 행복한 추억의 과정으로 간직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ISO명과 IUPAC명

신규 농약을 농림수산부와 환경청, 노동부 등에 출생신고 하기 위한 구비조건을 보면 크게 이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안전성(일반독성, 환경독성), 환경화학 및 거동, 기타(ADI,



가려진 진실 (II)

MRL, PHI, MSD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화학적 성질 중 ISO Common name, IUPAC명을 정하기 위한 과정을 돌아해보면 꽤나 혼란스러웠고 낯뜨거운 무지함도 경험했다. 우선 국내에 이러한 작업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나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CAS No.를 획득한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Chemical Abstract Service의 ANSI K62 위원인 Dr. Alan L. Goodson에게 문의하였다. 회신이 왔다. 자국내에 등록을 할 물질이라면 한국의 표준협회를 경유하거나 서울대학교내 식물방제학회 또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그곳에 전화로 문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금시초문이며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알려 달라는 반문에 그저 앞이 막막할 뿐이었다.

수소문 끝에 Breen & Gustaveson Ltd.라는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미국내 RAC (Regulatory Assistance Corporation)라는 등록 대행업체를 이용, 미국의 ANSI에 등록

을 경유함으로써 ISO에 등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도 등록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동일한 명칭이 없는 상황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통상 ISO에 제출한 후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니 내년초·중반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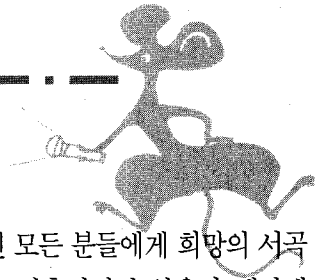
그 과정에 감사하고 잊지 못할 일이 있다. 시작 초반 국내의 B & G사의 담당자가 문모씨였는데 그 사이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이 중단을 겪을 뻔하였으나 지금도 가끔 전화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주고 미국의 RAC와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ISO에 일반명을 등록하는 절차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자국의 NSO(표준협회)를 경유하여 등록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두번째 방법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어 첫번째 방법인 International standard ISO 257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시작하였다.

이 절차는 Stage I ~ Stage V까지의 과정이 있다. Stage I은 Proposed common name을 기

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Stage II는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에 회람하여 국제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명이나 일반명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 조사하는 Draft proposal for a common name과정이다. Stage III은 Stage II가 끝나면 제안된 일반명에 대한 영어 및 불어의 2개국어로 해석서를 마련하여 회원국에 회람시키는 Draft common name의 단계이며 Stage IV는 Accepted common name단계, Stage V는 Published common name 단계로서 '선봉'은 Stage IV의 단계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오면서 한국에 등록하는 농약을 미국에 꼭 등록하여야 하는 Dr. Goodson이 제기한 의문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작성한 제반 자료로서 미국에 신규 농약으로 등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친절한 설명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IUPAC명도 세계 어느 기구나 학회의 공인된 자료를 구비하여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전부 무산되었다. 결국 대한화학회의 임시



계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서곡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작지만 크게 보람을 느끼는 나는 이 일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들, 특히 성보 사장님의 넓은 혜안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 흔한, 그러나 아무나 받지 못하는 산업포장 하나라도 드려 그분의 공적을 기리고 싶을 뿐이다.

지금의 내심정은 어렵살이 탄생시킨 나의 자식(?) '선봉' 이 그저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서 회사의 작은 동량으로라도 제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요즘 세태처럼 여유 자금이 라도 있으면 이 땅에서 개발치 못한 뛰어난 특징이라도 더 있는지 외국의 큰 물에 유학 보내어 더 공부시켜 보고픈 마음이 굴뚝 같으나 남들 부모만큼 여유자금이 없으니 투자도 못할 형편이라 아련 마음이 더욱 크다.

다만 최근 외국의 모 농약 major에서 양자로 한번 입적하여 키워 보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 자식위한 일편단심으로 깊은 관심속에 희망찬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스런 선봉' 아! 부디 잘 자라다오! 너만 믿는다. 나도 너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뛰련다. **농약정보**



지금의 내심정은 어렵살이 탄생시킨 나의 자식(?) '선봉' 이 그저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서 회사의 작은 동량으로라도 제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사랑스런 선봉' 아! 부디 잘 자라다오! 너만 믿는다. 나도 너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뛰련다.

방편적인 확인서를 구비하여 IUPAC 명명법에 적합하게 작명하여 출생 신고하기로 하였다.

'선봉' 탄생 희망 序曲으로 거듭나야

신물질 합성을 시작한지 12년 만에 비록 양어미로서의 신분이지만 어엿한 국산 신농약 1호를 탄생시켜 등록했다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긍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세상사 마찬가지로이지만 더불어 살아야지 혼자 힘만으로 되

는것은 없다는 것이며 관이건 연구소이건 민간기업이건간에 서로가 헌신적으로 돕고 협력할 때만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평생을 합성하여도 나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나에게 이러한 기회가 왔다는 것은 행운중의 행운일 것이며 감사할 따름이다.

처음 시작할때의 주변 여건이나 중간 상황으로 볼 때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창출시킨 이 역사적 의미의 결과는 같은 업무를 하고